

한국 합창의 발원지, 인천 유스 콰이어-2016
 인천 유스 콰이어 2016.10.28~29, 신도 및 송도 트라이볼
 송도 트라이볼

한국 합창의 발원지, 세계로 뻗어 나가다

2016 인천아시안유스콰이어
 2016.10.28~29, 신도 및 송도 트라이볼



‘한국’의 발원지인 인천 유스 콰이어는 1985년 10월 10일 ‘한국’의 발원지인 인천 유스 콰이어가 창립되었습니다. 인천 유스 콰이어는 1985년 10월 10일 창립된 이래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국 합창의 발원지로서 ‘한국’의 발원지인 인천 유스 콰이어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인천 유스 콰이어는 1985년 창립 이래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국 합창의 발원지로서 ‘한국’의 발원지인 인천 유스 콰이어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인천 유스 콰이어는 1985년 창립 이래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국 합창의 발원지로서 ‘한국’의 발원지인 인천 유스 콰이어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인천 유스 콰이어는 1985년 창립 이래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국 합창의 발원지로서 ‘한국’의 발원지인 인천 유스 콰이어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인천 유스 콰이어는 1985년 창립 이래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국 합창의 발원지로서 ‘한국’의 발원지인 인천 유스 콰이어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인천 유스 콰이어는 1985년 창립 이래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국 합창의 발원지로서 ‘한국’의 발원지인 인천 유스 콰이어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인천 유스 콰이어는 1985년 창립 이래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국 합창의 발원지로서 ‘한국’의 발원지인 인천 유스 콰이어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이 '40주년(1960, 1965, 1970, 1975)'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함께 모여
 이 40년 동안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에 '40주년'을 기념하여 1~2월 동안에 걸쳐
 다양한 공연(음악, 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 우리 젊은 세대들이 1~2월 동안에 걸쳐
 다양한 공연을 통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단체는 1960년 4월 15일 서울에서 창립된 이래로
 (1938년) 창립(1938년 창립)을 기념하여 1960년 4월 15일
 창립 34주년을 기념하여 1995년 '40주년'을 기념하여
 창립 34주년을 기념하여 1995년 '40주년'을 기념하여

이 단체는 2009년 IFCM 150주년 기념 공연을
 1999년 창립 61주년 기념 공연, 2005년 40주년 기념
 공연, 2009년 ACDA(아시아 문화 예술 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공연 등을 통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공연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2014년 아시아 청소년 합창 대회'의 일환으로, '아시아 청소년 합창 대회'를 주관하는 '아시아 청소년 합창 대회'가 주최했다. 이 대회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온 청소년 합창단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서는 'Missa Brevis(짧은 미사)'를 연주했다.



이번 공연은 '아시아 청소년 합창 대회'의 일환으로, CTS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아시아 청소년 합창 대회'가 주관했다. 이 대회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온 청소년 합창단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서는 'Missa Brevis(짧은 미사)'를 연주했다. 이 공연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2014년 아시아 청소년 합창 대회'의 일환으로, '아시아 청소년 합창 대회'가 주최했다. 이 대회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온 청소년 합창단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서는 'Missa Brevis(짧은 미사)'를 연주했다.

10월 28일과 29일, 29일에는 'Missa Brevis(짧은 미사)'를 연주했다. 이 공연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2014년 아시아 청소년 합창 대회'의 일환으로, '아시아 청소년 합창 대회'가 주최했다. 이 대회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온 청소년 합창단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서는 'Missa Brevis(짧은 미사)'를 연주했다.

이 프로그램 'Go! Classic', 10대 청소년들이 클래식 음악을 접하고, 20대 젊은이들이 클래식 음악을 즐기며, 30대 이상의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클래식 음악은 오랜 역사를 가진 예술 형태로서, 다양한 문화와 감정을 표현하는 데 탁월하다. 그러나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융합하여 젊은 세대의 흥미를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을 벗어나,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융합하여 젊은 세대의 흥미를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을 벗어나,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융합하여 젊은 세대의 흥미를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